

“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

< 마태복음 6장 33절 >

-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늘푸른사랑방 공동체생활이 오늘부터 1박 2일간 포천에서 있습니다.
- 멋쟁이학교 종강여행이 7월2일(화)부터 2박 3일간 속초에서 있습니다.
- 역할공동체별 2/4분기 실행위원회 정기 회의가 오늘 있습니다.
- 제 45차 공동체운영위원회 정기 회의가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 내일부터 성서일기 본문이 다니엘서에서 호세아서로 바뀝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김종훈 · 장미라 집사 가정 ( 감사 )  
정낙귀 집사 · 정혜정 권사 가정 ( 감사 )

강단을 꽃으로 : 박예찬 청년 ( 생일 감사 )

신협(현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1 - 26 호

2024년 6월 30일

#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 사랑방공동체 탐방 소감문

학교에서 교회 밖 현장 실천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형식적이고 구색 맞추기 위한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별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나의 관심사나 사역의 방향에 맞는 곳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탐방신청 상담을 받기 전에 여러 군데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랑방 공동체였습니다. 상담을 할 때 교수님이 저의 사역에 대한 키워드를 이야기 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방에 하나님 나라의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거나 돕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사랑방공동체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저도 미리 생각했기 때문에 공동체를 탐방하게 되었습니다.

탐방하는 날짜가 생각보다 빨랐고 성경종합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탐방의 시간이 계속해서 좀 부담스럽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에 도착을 하고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제가 20대 중후반부터 꿈꿔왔던 공동체가 현실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진로를 앞두고 소명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했었습니다. 그 때 초중고에서 실시하는 자기주도학습 캠프의 스태프로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만났던 대부분이 친구들은 꿈이 없었습니다. 학교의 피상적인 교육 일변도로 자기 자신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 연변으로 비전 트립을 가서 명동 촌을 방문하였고 어떻게 이런 작은 마을에서 많은 독립 운동가가 많이 나올 수 있었을까 생각 했을 때, 공동체와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성숙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의 생각이 너무 이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꿈을 축소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랑방 공동체를 보면서 이게 내 생각보다 더 현실 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태일 목사님이 여러분 모두 누구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이 죽어 있던 소망과 기대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선교단체에서 배웠던 많은 좋은 내용들이 사랑방공동체에 원리와 장치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방 공동체가 계속해서 꿈꾸며 세대를 지날수록 꿈 껴왔던 모습에 더 가까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공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며 더욱 가야할 길이 많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방공동체 탐방 이후에 계속해서 공동체에 대한 소망으로 가슴이 뻘을 느낍니다. 언제까지 이 정서가 같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계속해서 삶에서 사역에서 녹여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깊이 있게 돌아보고 안전한 공동체 안에서 주어지는 피드백으로 사람들을 성숙하게 만드는 원리와 장치를 저의 청년부 지체들에게 적용하고 싶어졌습니다. 또 공동체를 시작하려고 할 때에, 먼저 말씀을 통한 진실한 나눔이 이루어지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나서 선교단체 간사 생활을 몇 년 더 해야 하는데, 이때 공동체를 꿈꾸면서 저만의 공동체 신학과 철학을 세워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측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시고 바라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주신 사랑방공동체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학년 고성진

## 한주간 말씀

“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  
 < 시편 130편 7절 말씀 >

### < 수요기도회 >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543장 502장 586장  
 기도 : 정혜정 권사  
 성경 : 다니엘 8장  
 제목 :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

1. 내용: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천사가 그 뜻을 해석해 주었다 (What)  
 <문단구분>  
 1절 두 번째 환상을 보다  
 2~12절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  
 13~27절 천사가 환상을 해석해 주다
2. 의미: 묵시가 역사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 (Why)
  - 1) 숫양은 메데와 페르시아의 흥망을 뜻합니다.
  - 2) 숫염소는 헬라제국의 알렉산더와 이후에 4왕국을 뜻합니다.
  - 3) 작은 뿔은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를 뜻합니다.
3. 적용: 역사 안에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자 (How)
  - 1) 악인의 권세와 형통함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 2)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자신감을 가지자.
  - 3) 모든 것은 정한 때가 있다. 그것이 궁극적 희망이다.

## 정원을 가꾸기의 즐거움

작년에는 제가 빵굽기에 빠져있다고 소개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제가 정원 가꾸는 일의 즐거움에 푹 빠져있습니다. 전원생활을 시작한 것은 벌써 13년째인데, 나이 오십이 넘어서야 정원 가꾸는 일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퇴근을 해서 집에 오면 정원으로 나가서 식물들을 살피면서 물을 주고, 시든 잎이나 꽃이 진 꽃대를 잘라주기도 하고, 화분 분갈이도 하고, 머리가 길어진 잔디도 깎으면서 정원을 가꿉니다.

현재 우리 집에는 살구, 사과, 복숭아, 자두, 대추, 매화, 배, 보리수, 앵두, 라일락, 블루베리, 쪽동백, 산수유, 무궁화, 꼬리조팝, 황매화, 자작, 울마, 블루엔젤, 문그로우 등 다양한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화단과 화분에는 수국, 장미, 베르가못, 메리골드, 국화, 백일홍, 문범, 수레국화, 카라, 글라디올러스, 톱꽃, 자주달개비, 샤프스타데이지, 양귀비, 제라늄, 구문초, 물망초, 달맞이, 채송화, 코스모스, 카네이션, 밀레니엄벨, 페츰니아, 로벨리아, 칼랑코에, 안개꽃, 사계국화, 델피늄, 버베나, 초화화, 붉은병꽃, 초롱꽃, 은방울꽃, 비비추, 바위취, 벌개미취, 임파첸스, 캄파놀라, 다알리아, 베고니아, 후레지아, 금낭화, 매발톱, 튜립, 비덴스, 비올라, 말발도리, 해당화, 과꽃, 장미허브, 펜타스, 펜스데몬, 센투란투스, 그리고 월동된다고 심었던 이름 모를 꽃들이 피었다 지면서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냅니다.

다양한 향기와 색깔을 가진 꽃과 나무들이 간간이 불어오는 바람과 새들의 지저귀 소리과 어울려서 더욱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냅니다. 생긴 것은 서로 달라도, 다투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존재를 아름답게 피워내는 것을 보면서 나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어진 환경 탓하지 않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생명의 역할을 다하는 꽃과 나무들을 보면서 자꾸만 환경을 탓하고, 사람들을 탓하며 살고 있는 제 모습이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정원과 참으로 비슷합니다. 정원은 가꿀수록 아름다워지는 것처럼 마음도 가꿀수록 아름답습니다.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쏟는 관심과 사랑을 저의 마음 정원을 가꾸는 일에도 쏟아보렵니다. “나는 이 세상을 구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지구 위 작은 한구석에서 삶은 괜찮게 굴러간다.” - 시몽 위로

따뜻한사랑방 우창숙 집사

##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요한복음 4 : 23-24 인도자  
20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로마서 6 : 17-18 인도자  
363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시편 130편 설교자  
357 그루터기사랑방  
“바라고 기다리는 믿음” 정재훈 목사

###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설교자  
312 다함께  
인도자  
438(1)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김영동 전경희 / 봉헌위원 : 김기환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배

## 공동기도문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신앙이 성숙해지는 은혜를 베풀어주십시오. 아멘.

## 바라고 기다리는 믿음

간절한 기다림. 시편 기자는 주님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자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깊은 물속에서. 깊은 물속에서 간구하고 있다는 말은 기자가 당한 어려움의 크기를 알려줍니다. 깊은 물속은 바다 속을 의미합니다. 죽음과도 같은 고통입니다. 후반부를 보면 이것은 개인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당하는 어려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바벨론 포수 시절에 쓰인 시입니다.

성숙한 믿음, 기다림. 모든 인생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대하는 모습은 각기 다릅니다. 신앙인의 모습 역시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하지만, 어둠을 지나고 동이 트듯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기다림이라는 과정으로 연단되고 다듬어집니다. 성숙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조장희 집사

##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 꾸러기학교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이번 6월25일에 꾸러기는 다 같이 동두천에 있는 벨기에, 룩셈부르크 참전기념탑과 자유수호평화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참전기념탑은 매우 컷습니다. 탑을 보며 처음으로 한국전쟁과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탑을 본 다음에는 자유수호평화박물관에 갔습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은 들어가는 입구부터 커다란 비행기, 탱크, 대포들이 전시 되어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꾸러기들 눈이 핑핑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와 탱크와 대포를 가까이서 보고 싶다며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은 한국전쟁 당시 어떤 나라들이 참전했고, 어떻게 활동했는지 알려주는 곳이었습니다. 게임과 같은 체험활동도 많고, 볼거리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전쟁 당시 찍은 사진, 영상 그리고 사용했었던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참전한 나라별로 정리해놔서 어느 나라가 참전했었는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중 참전기념탑으로 먼저 만난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도 있어서 다시 만나 반가웠습니다.

한국전쟁 때 살지는 않았지만 그때 우리나라를 용감하게 지켜주신 다른 나라 용사분들을 알게 되고, 정말 감사하다는 걸 알게 된 뜻 깊은 하루였습니다.

< 교사 : 이어람 >

### 어린이학교

지난 토요일, 이번 학기 마지막 어린이학부모 회의가 있었습니다. 한 학기를 정리하며 참석한 부모님들께서 한 학기동안 느낀 소감을 돌아가며 나누었습니다. 그 중 몇 분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3학년어머니 : 다른 학부모님들께서 수고해주셔서.. 혜택을 받으면서 보낸 1학기였다. 우리 아이는 이제 1년이 되어간다. 1년간 많이 자라가고 커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시간이었다. 멋쟁이에 보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왔는데 이 시간이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일 거 같다는 생각에 감사하다.

6학년어머니 : 작년엔 적응하느라고 정신없었던 한 해였는데 올해는 다 경험을 했던터라 이제는 마음이 편하다. 오늘 오면서 아이들과 땅을 밟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얘기하는데.. 이 아이들은 매일 흙을 밟고 살고 있다는 생각에 감사했다. 작년에는 주차장에 자갈을 깔지 않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진흙이 묻은 차가 창피했는데.. 이제는 보물을 발견하고 사는 거 같다. 학교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진 학교라는 생각이 들었다. 감사하다.

< 교사 : 정다운 >

### 멋쟁이학교

멋쟁이들의 눈가가 초조해보입니다. 이번 주는 가장 긴장도가 높은 기간, 바로 학기말 학생면담이 있는 주간입니다. 학기말 면담은 한 학기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되짚어보면서, 선생님과 만남을 갖는 시간입니다. 멋쟁이학교는 기말 성적표 대신 인격적인 성장과 삶의 변화를 공유하는 면담을 통한 기록을 남깁니다.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멋쟁이들에게는 토요일에 있는 종강발표회를 준비해야 되면서도, 선생님과 만나며 깊은 피드백을 함께 나누는 긴장된 주간입니다. 함께 오갔던 대화와 칭찬, 격려와 권면을 잘 기억하며 더욱 성숙해지는 멋쟁이들이 되기 바랍니다.

토요일에는 드디어 종강발표회가 있었습니다. 날씨보다 뜨거운 부모님의 손길로 맛있는 식사가 정성스레 차려졌습니다. 가족 친지 뿐만 아니라 졸업생들도 여럿이 찾아오는 것을 의식하며, 멋쟁이들은 아슬아슬할 때까지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들의 배움과 성장, 끼와 작품을 선보이는 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역대 가장 많은 코너가 준비되었습니다. 어찌나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이 많았는지, 몇 가지는 가지치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멋쟁이들이 자신들을 불태워서 달군 종강발표회는, 웃음과 감동이 함께 머무는 장이 되었습니다. 멋쟁이들이 고백한 대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주신 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는 종강여행을 떠납니다. 속초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며 아름다운 마무리가 있게 기도해주세요.

< 교사 : 이어진 >

## 소소한 바람이 이루어지다

그루터기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공동체학교 아빠들과 축구를 하다 부상을 당했었다.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았지만, 간간이 축구나 배드민턴, 탁구를 하면서 무릎 통증으로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 쓰러지곤 했다. 그러나 일어서면 감쪽같이 통증이 사라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내버려 둔 게 드디어 사달이 나고 말았다.

올해 들어 통증이 지속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급기야는 너무 아파서 119까지 부를 정도가 돼서야 병원을 방문했다. MRI 영상을 보던 의사가 기가 찬다는 눈빛으로 인대가 완전히 없어져서 연골이 찢어지는 바람에 너덜 너덜대고 있다고 했다.

3개월 휴직을 하고,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예상했던 통증이 몰려오면서, 나의 인내심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통증은 갑자기 먼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고, 그렇게 정당하게 타보고 싶었던 휠체어에 몸을 맡기면서 불편한 듯, 편한 듯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재활 치료를 받았다. 깁스를 풀고, 무릎보조기를 착용하면서 휠체어 대신 목발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옛 생각이 문득 났다. 어린 시절 조심성이 없어 이런저런 사고를 많이 당해 항상 발에 깁스를 달고 다녔지만, 한 번도 휠체어나 목발을 사용하지 않았고, 한발 뽕뽕이로 다니며, 나도 목발 좀 해봤으면 하는 철없는 소원을 이제야 푸는구나 하면서, 웃음이 지어졌다. 솔직히 이런 바람이 이루어진 것이 우연인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지는 알 길이 없다. 하지만 믿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소원 풀이 해주셨다고 믿고 싶었다.

의사는 수술도 잘됐고, 재활 속도도 20대 못지않게 빠르다고 하면서, 관리만 잘하면 무릎 때문에 고생할 일은 없다고 했다. 지금은 잘 쉬면서, 적당히 일하고 운동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 이 또한 감사한 일이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루터기사랑방 정낙귀 집사

## <수요 정오기도회>

인도 : 장영미 전도사

찬송 : 293장, 563장

성경 : 로마서 8장 31~39절

말씀 :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후>  
지구 온난화로 이상기후가 나타나는 지금, 각 나라들이 환경을 위한 실제적인 방안을 결단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통일과 북한의 기독교인들 위해>  
6.25 74주년을 맞이하면서 통일에 대해 교회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여러 행사와 손님들을 위해서>
  - 1) 멧쟁이학교 학기 마무리를 위해, 종강발표회와 종강여행.
  - 2)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내적인 건강.

## <생활공동체 소식 >

빨갭게 농익은 보리수가 공동체식구와 학생들에게 아주 맛난 후식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식사 후에 보리수를 서로 따주며 애정의 마음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밭에는 갖가지의 채소들이 열매를 맺어가며 공동체의 풍요로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샘물 중·고등학교 선생님들과 중국의 목사님 가족 등 사랑방에 오셔서 함께 공동식사도 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느티나무 아래에서 참 쉼과 함께 차 한잔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장영미 전도사 >